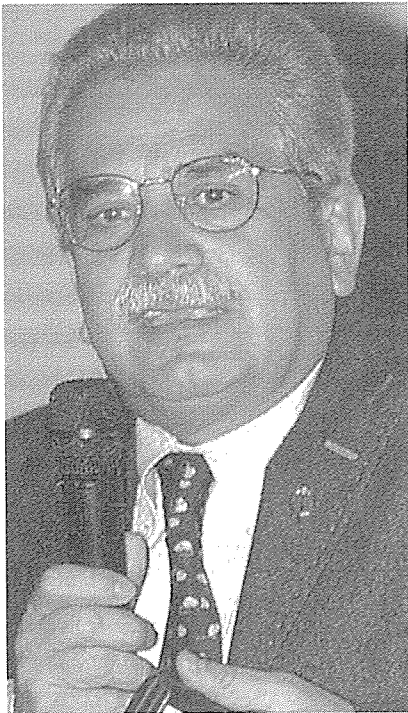


‘복제 어린이’의 아버지

세베리노 안티노리

Severino Antinori



오늘날 인간복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핵심인물인 이탈리아 태생(胎生)학 전문가 세베리노 안티노리(Severino Antinori)는 교황청으로부터 아돌프 히틀러를 닮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으나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안티노리는 1994년 63세의 로자나 델라 코르테스라 할머니에게 시험관아기를 임신시키는 데 성공하여 세계 기록을 세운 이래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성과에 만족하면서 세계의 부유한 불임부부들에게는 ‘기적을 일구는 사람’

으로 비쳐지고 있다. 현재 민간기관인 이탈리아-미국-이스라엘 인간복제컨소시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교황청에서 불과 2~3백m 거리에 자리한 불임(不妊)클리닉을 운영하면서 2002년 4월에는 마침내 한 여성에게 복제인간을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종교계와 일부 학계로부터 비난의 과녁이 되고 있다.

4월 복제인간 임신 성공

1946년 이탈리아 중남부지방 아브루자마을의 소 지주 아들로 태어난 안티노리는 소년시절 수의사인 삼촌이 이웃 농장에서 소에게 인공수정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 로마로 이사한 뒤 로마대학 의대에 진학하여 세균학을 전공하는 카테리나 베르사치앙을 만났으며 1972년 졸업하자 곧 결혼했다. 대학에서 위장병학을 전공했던 그는 다시 부인과학을 전공한 뒤 로마의 레기나 엘레나병원 산부인과에 일자리를 잡고 미래의 터전을 닦았다. 그는 이 곳에서 1986년 이탈리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의 탄생을 지휘했다.

부인과 함께 인간복제연구 클리닉을 차린 안티노리는 1980년대 말 난자 주변의 투명대 밑에 정자를 갖다 붙이는 새로운 수정기술(SUZI)을 개발하여

하나의 정자를 직접 난세포에 주입하는 이른바 세포질 내 정자주입(ICSI) 기법의 길을 열었다. 그 뒤 레이저를 도입하여 배태착상(胚胎着床)을 부추겼으며 40여편의 연구논문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는 이런 논문 편수 못지 않게 많은 송사(訟事)에 휘말리게 되었다. 현재 그는 저널리스트, 동료 의학자 그리고 카톨릭교회 등에 대해 적어도 36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수정기술을 발명했을 때 추기경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이 설치한 방벽을 부숴버린다고 주장했으나 ICSI는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예사로운 일이 되어 버렸으며 이것은 운동력이 작은 정자를 가진 수백만명의 남성들이 자녀를 가지는데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 질병제어 및 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록 유전학자들이 ICSI가 염색체의 비정상 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9년 중 90% 이상의 미국 불임연구소가 이 기술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결책은 ‘유전적 재생’

그러나 ICSI만으로는 환자를 모두 도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세상에

이탈리아 태생(胎生)학 전문가인 세베리노 안티노리는 지난 94년 63세의 할머니에게 시험관 아기를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한 여성에게 복제인간을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교황청으로부터 아들프 히틀러를 닮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그는 현재 교황청 옆 가까운 거리에서 부인과 함께 불임(不妊)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는 정자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1억에 이르며 그 유일한 해결책은 '유전적 재생'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복제란 헐리우드식 낱말인데 이 말은 마치 일련의 동일한 인물을 만드는 일과 같은 뜻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복제 DNA(유전자를 구성하는 분자화합물)는 기증된 핵에서 나온 것이며 난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극히 일부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의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복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티노리는 200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립과학아카데미가 조직한 세미나에서 동료인 파나티오티스 자보스와 브리짓트 보아셀리어와 함께 의학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 세미나에서는 대부분의 동물복제는 심한 출생결손으로 고통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데 복제양 돌리를 만든 스코틀랜드의 이안 윌멧을 포함한 정상급 전문가들이 인간복제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티노리와 그의 동료들은 그런 경고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면서 돌리의 연구는 '수의들의 동물다루기'로 무시했다.

안티노리에 따르면 정확한 출생 전 검사를 통해 대부분의 결함은 탐지할 수 있어 잘못된 태아는 유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제양은 이런 결함을 자세히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복제양은 결보기로는 완벽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생 후 신경계 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티노리는 현재 이런 질병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으나 체외수정(IVF)과 ICSI는 동물보다 인간의 경우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복제의 경우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립 과학아카데미의 한 패널은 2002년 1월 인간복제의 금지를 건의했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복제는 지지했다.

인간복제 비용 30만달러

그는 인간복제에 소요되는 30만달러의 비용은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부유한 아시아와 아랍인들의 민간자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안티노리는 20세포의 복제인간 태아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 모처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매서추세츠주 소재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사(ACT)는 2001년 11월 복제인간 태아가 6세포에 도달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안티노리의 접근법이 ACT 연구자들이 한 것처럼 섬유모세

포가 아니라 대신 표피세포에서 핵을 취했고 서로 다른 핵 사이클단계의 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어코 인간복제를 강행하겠다는 안티노리의 결심은 그의 생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생식 복제에 대해 불명예스런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때 부회장을 지냈던 국제민간태생클리닉협회로부터 추방되었다. 이 협회는 안티노리가 계속해서 그의 복제계획을 추진하면 면허까지 취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노리는 생식복제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인간복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인간실험이며 불임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탈리아만도 6백쌍 그리고 미국의 6천쌍 이상의 불임부부들이 이미 복제아기를 가지는 절차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의 시끄러운 비난보도는 오히려 그의 사업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를 찾는 환자들은 "비싸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가 최고 전문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를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구가 안티노리의 클리닉을 번창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①7

玄 源 福 (파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